

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	 페이스북 @kcanews
		 인스타그램 @kca.go.kr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	2022년 5월 2일(월) (총 3쪽)	담당	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
			오경임 팀 장 (043-880-5811) 신채은 대 리 (043-880-5815)
			(사)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
			유수현 사무총장 (02-3463-5378)

어린이 안전 정보, ‘어린이 안전넷’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!

- 한국소비자원, 민·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 콘텐츠 통합 제공 -

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해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8,000*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.

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어린이 위해정보 : '18년 23,771건, '19년 24,590건, '20년 18,226건

이에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과 (사)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(회장 오재석)는 5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공공과 민간에서 제작한 다양한 어린이 안전 콘텐츠를 어린이 안전 종합 포털 ‘어린이 안전넷’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.

※ 어린이 안전넷(www.isafe.go.kr) :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 종합 정보망으로, 어린이 소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정보와 예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‘어린이 안전넷’은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업 이음터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제작·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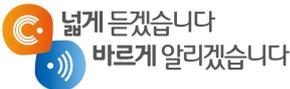
현재 식품안전정보원, 한국전기안전공사, 민간 기업(서울우유협동조합·샘표식품·CJ ENM 커머스부문·유한킴벌리(주)·한국피앤지·한샘)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안전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협업이음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※ 협업이음터 : 행정안전부에서 ‘광화문 1번가’를 통해 개설(20.6.19.)한 온라인 협업 매칭 플랫폼으로, 공공·민간의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아 이어줌으로써 민·관 또는 기관 간 협업을 지원

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한 이번 협업으로,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어린이 안전넷에서 제공될 예정이다. 또한 유치원·학교 등 교육 기관은 어린이 안전 교육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자료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“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넷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유익한 안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[붙임] ‘어린이 안전넷 홍보 카드뉴스’

	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ca.go.kr	
--	---	--

1

2

3

4

5